

“경제성장·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데 힘 쏟겠다”

여의도포커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단합과 정책실행력 강화가 최우선 목표
직언은 혁신성숙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
송영길 풍부한 경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오면서, 늘 당과 대통령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 운영과 정책 방향 등에서 때로는 직언을 드린 적도 있지만, 이는 당의 혁신과 성숙을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고, 건강한 소통 구조가 당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해온 김 의원은 하반기 목표에 대해 “당의 단합과 정책 실행력 강화가 최우선 목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이루는 데 힘을 쏟겠다”며 “3선 중진으로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당의 안정적 운영과 국정 동반자 역할을 집중하겠다. ‘코스피 6000 시대’로 상징되는 성장 기대 속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 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참여예산제” “행정심판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은. △재정민주주의 강화와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참여예산제 토론회’는 지난 2011년 도입 후 15년 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행안부 평가에서 대다수 지자체가 ‘개선 필요’ 판정을 받은 실효성 약화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결과도 논의의 계기가 됐고, 전문가·지자체 패널이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심판제 토론회’는 산업폐기물·난개발 피해 주민들의 행정 불복권 확대를 위해 제3자 불복권, 참가고지 의무화, 중앙행정심위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과 관련 빠른 처리를 주장한 이유는.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돈부투 의혹’ 2심 무죄·검찰 상고 포기로 결백이 확인된 상황에서 지난달 27일 최고법원 대법원에서 복당이 최종 결정됐다. 중앙당 주도로 정치 공백을 최소화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 중진으로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당의 안정적 운영과 국정 동반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 송 전 대표의 풍부한 경험을 당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당이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당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공식 대책위원회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윤석열 정권 조자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기존 ‘정치검찰 조각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한 당 공식 기구이다. 개별 의원 모임으로는 산발적 대응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를 당 차원으로 일원화해 추진력을 확보했다. 정치적 공세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하고 민주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에 대해 한 말씀. △저는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다. 양당은 정책 기초와 노선이 거의 같고, 윤석열 탄핵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동지로 함께 행동해왔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가 현재는 지선 이후로 조정된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 성과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세력의 외연 확대와 선거 협력이 필요하다. 양당이 ‘연대 및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과 조율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법사위 운영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야가 반복적으로 충돌하며 국민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다.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상임위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사위는 본래 입법의 체계를 심사·조율하는 기구로서 가능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 운영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순신 포럼’은 어떤 조직인가. △‘이순신 포럼’은 제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모임이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애국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와 위국 국민 정신은 오늘날 정치와 사회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포럼에는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연과 세미나,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원조 친명’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오면서, 늘 당과 대통령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 운영과 정책 방향 등에서 때로는 직언을 드린 적도 있지만, 이는 당의 혁신과 성숙을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고, 건강한 소통 구조가 당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수원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의 신속한 추진이 관건이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수원시장, 국방부 장관이 함께한 면담에서 원도심 재도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성장 전략으로 이 사업을 강조했다. 국방부 내 전담 TF 구성, 갈등조정협의회 지원, 첨단산업 유치 등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국방력 강화와 주민 피해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총괄수석 부대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는데 하반기 목표는. △당의 단합과 정책 실행력 강화가 최우선 목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이루는 데 힘을 쏟겠다. 3선 중진으로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당의 안정적 운영과 국정 동반자 역할에 집중하겠다. ‘코스피 6000 시대’로 상징되는 성장 기대 속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 없이 뛰겠다. 이성오 기자 s0lee235@gwangnam.co.kr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과 수원시장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만나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제22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370-7090

※ 후원 시에도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전라남도, 후원(예정): 나주시,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